

백삼위 안인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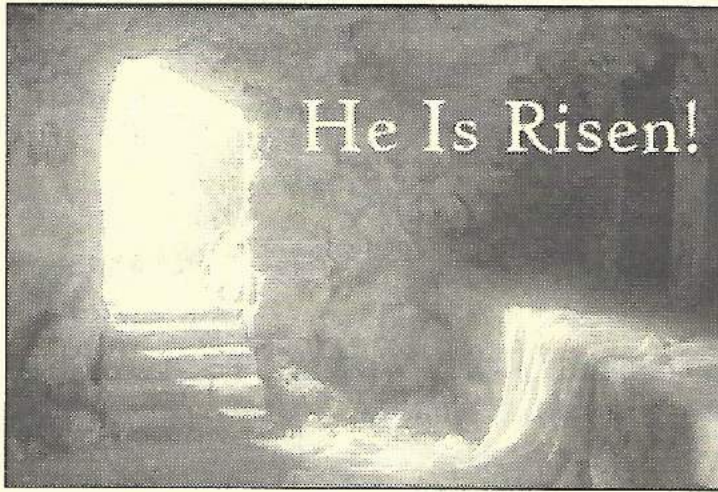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예수 부활 대축일

제36권 18호(다해) 2016년 3월27일

[묵상]



< 예수님의 부활 >

“그분이 홀로서 가듯”

故 구상(具常)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저 2천 년 전 로마의 지배 아래/
사두가이와 바리사이들의 수모를 받으며/ 그분이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악의 무성한 꽃밭 속에서/ 진리가 귀찮고 슬프더라도/
나 혼자서 무력(無力)에 지치고/ 번번이 패배(敗北)의 쓴잔을
마시더라도/
제자들의 배반과 도피 속에서/ 백성들의 비웃음과 돌팔매를 맞으며/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정의(正義)는 마침내 이기고 영원한 것이요/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요/
우리의 바람과 사랑이 헛되지 않음을 믿고서/ 아무런 영웅(英雄)적
기색(氣色)도 없이/
아니, 볼품 없고 병신스런 모습을 하고/
그분이 부활의 길을 홀로서 가듯/
나 또한 홀로서 가야만 한다.

- 오 -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광회 (장래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트레아(넷째주) 성소후원회(첫 목요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30
금요일	성경공부(구약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학생 복사단(둘째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후 4:00 오전 10:00 오후 6: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3째주 - • 요셉회 4째주 -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3: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요 저녁 미사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
	(생)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Apostles) 10,34-37-43

화답송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님이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 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셨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업을 이루셨다!” 나는 죽지 않으리라, 살아남으리라.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리라.○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 돌이 되었네. 주님이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3,1-4<또는 1코린5,6-8>

부속가 파스카 희생제물 우리모두 찬미하세.
그리스도 죄인들을 아버지께 화해시켜
무죄하신 어린양이 양떼들을 구하셨네.
죽음생명 싸움에서 참혹하게 돌아가신
불사불멸 용사께서 다시살아 다시리네.
마리아, 말하여라. 무엇을 보았는지.
살아나신 주님무덤 부활하신 주님영광
목격자 천사들과 수의염포 난보았네.
그리스도 나의희망 죽음에서 부활했네.
너희보다 먼저앞서 갈릴래아 가시리라.
그리스도 부활하심 저희곁에 믿사오니
승리하신 임금님, 자비를 베푸소서.

○ 알렐루야.

복 음 환호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복 음 요한(John) 20,1-9

영성제송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 희생되셨으니,
순결과 진실의 누룩 없는 빵으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알렐루야.

한국 교회의 역사

4. 박해의 원인과 순교의 의미

4-2. 순교의 개념과 의미

당시에 작성된 「포도청등록(捕盜廳騰錄)」에는 전국에서 체포·압송해 온 408명의 신자들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이들 가운데 취조 과정에서 시종일관 자신의 신앙을 관철했던 신자들은 35%에 이르고 있다. 반면에 신문 과정에서 배교를 선언한 신자는 체포된 사람들 가운데 51%에 이르렀다. 신교와 배교 여부가 미상인 기록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볼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신앙을 증언하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 또한 이 신앙고백을 통해서 죽임을 당한 신자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한다.

오늘날 교회는 순교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의 두 가지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 곧 광의의 개념으로는 자신의 신앙에 대한 증언 행위 모두를 순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순교(martyreo)라는 그리스어 단어가 ‘증언하다’, ‘증거하다’, ‘증인이 되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데에 착안한 개념 규정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순교라 할 때에는 협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순교를 협의로 규정할 때에는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첫째, 순교자는 실제로 죽음을 당해야 하고, 둘째, 그 죽음이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초래되어야 하고, 셋째,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이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인 사람이어야 한다. 박해 시대의 교회사에서는 무수한 광의의 순교자들이 존재해 왔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들 가운데 대략 1,800여 명에 이르는 협의의 순교자들을 주목하여, 이들의 죽음, 순교의 개념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순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궁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교회사의 박해 시대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부심과 확신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였다. 물론 박해 시대에 처형된 신자들 가운데에는 신앙보다는 현실 정치 문제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은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다수의 신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증언하기 위해서 죽음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였다.

< 계속 >

	학생 미사	낮 미사
시작	169	169
봉헌	166	165, 167
성체	162	163, 168
파견	170	170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의 부활

예루살렘 성전 성묘성당에 가보면 예수님의 무덤 옆에 막달레나의 부활 체험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막달레나의 부활 체험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통해 사랑 받은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이었지만 오늘 복음 속 그녀의 신앙은 연민과 집착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맞았다고 생각 하며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막달레나의 사랑이 연민과 집착 안에서 혼란을 겪고 난 뒤에야 그녀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또한 빈 무덤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게 됩니다.

막달레나는 주님을 잃고 그분에 대한 지나친 연민과 집착의 시간을 지낸 후에야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부활을 체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사랑 받은 제자는 진정한 사랑 안에 깊이 머물렀기에 베드로가 빈 무덤에 들어간 다음에 뒤를 따라가서 주님의 부활을 믿는 공동체를 체험합니다.

우리는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신앙인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기도를 통한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고 확고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고 의미 없이 지나쳐버리는 예수님의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 안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 가운데 현존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체험시켜주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깨닫고 그분 사랑에 대한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가운데 믿음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지나친 애정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부활을, 무미건조한 삶에 생기를 주는 하느님의 은총이 넘치는 부활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의 현존을 자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동감이 넘치는 신앙을 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자각한 제자가 베드로 사도를 모시고 체험한 빈 무덤에서의 부활 체험은 새로운 초대 교회 공동체가 성령에 의해 창립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교구 공동체도 주교님과 함께 부활을 체험함으로써 자유를 누리며 공동체적 나눔과 일치룰 이루게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사랑 받은 제자도 들어갔다.”

(요한 20,6,8)

◆ 김창훈 바오로 신부 / 영신 수련 담당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손석 스테파노
제1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곽수진 보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김교복 레오	신중철 아브라함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김금자 데레사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하버/카슨 1,2반

- ◆ 고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Happy Easter! Alleluiah.

교우 여러분 가정에 주님 부활의 기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주간과 부활 대축일 전례를 위해
수고해주신 본당의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 ◆ 어르신들께 부활절 선물 전달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본당 어르신들과 이웃 노인 아파트에 쌀을 나눕니다.

70세 이상 교우께서는 한 가정에 한 포씩 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칼슨과 마리코파에 사시는 분은 직접 배달해 드린 성당에서는 가져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 ### ◆엠마오스 여행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엠마오스 여행을 다녀옵니다.

- 일시: 3월 28일(월,) 8시 성당출발, 저녁 6시 성당 도착
- 여행지: 팜스프링 Aerial Tram 케이블카
- 미사시간 임시변경: 평일 미사 29일(화), 31일(목),
4월 1일(금) 없습니다.

- ### ◆ 성혈봉사자 모집

본당 교우이시며 50세 이상 되시는 분 중 성혈 봉사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 신부님의 면접과 교육 후 봉사자로 임명될 것입니다.

- ### ◆ 주일학교 첫 영성체 반 학부모 간담회

주일학교 첫 영성체 반과 첫 영성체 특별 반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고 학부모님과 소통하는 자리이니 첫 영성체 대상자 학부모님께서서는 필히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오늘주일(27일) 부활절 일요일 학생 미사 후
- 장소: ROOM 7
- 대상: 올해 첫 영성체 & 특별반 학부모님

- ## ◆2016 복음서 쓰기 대회 시상

약 한 달간 진행되었던 올해 요한복음서 쓰기 대회 수상자입니다. 학생 12명과 교사 1명, 학부모 6분께서 함께 필사하여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 초등부 MINI F.I.G.S
Julia Jang, Amy Lee, Samuel Park,
Leighna Kim, Kaylee Kim
- 중등부 F.I.G.S. Jr.
Andrew Chong, Insoo Lee, Sejin Park,
Alison Kim, James Jang
- 고등부 F.I.G.S.
Kimberly Ko, Justin Jang
- 주일학교 교사
Andrew Nam
- 학부모
박순진 엘리사벳, 장주란 마리아, 김수진 마리아,
김현숙 벨라데타, 김선미 테레사, Rachel S

- ◆ 다음 주일은 (4월3일) 봄 방학으로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수업이 없습니다.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부활 대축일 전신자 점심 나눔(토남 3반 봉사)
: 소고기 미역국(무료)
* 주일학교: 후라이드 치킨 (자모회)
● 4월 3일 * 소공동체: 김밥 (\$ 4), 컵라면 (\$2)
* 주일학교: 수업 없음

지나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숙경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교복	김대우
	김 명	김병태	김상규	김선영	김성택	김재성
	김철민	나경흠	남성철	박정자	신순철	양영관
	엄영희	오신재	유영균	육근주	윤선희	윤 철
	이경수	이미예	이우성	이정분	임 순	임한나
	장영진	정남형	최원석	한창주	홍인표	한길선례
	합계:\$3,695					
주일미사헌금 :\$2,754						

성전헌금	강숙경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교복	김대우
	김 명	김재성	김철민	나경흠	남성철	신순철
	양영관	윤선희	이경수	이미예	이우성	이정분
	임 순	임한나	장영진	정남형	최원석	한창주
	한길선례					
	합계 : \$2,105					
	감사헌금 : \$200(신순철, 박승주)					
환불수입 : \$29.65						

◆주일학교 여름캠프 등록안내

- 날짜: 7월 8일 금요일 ~ 7월 10일 일요일
- 장소: Oak Glen Christian Conference Center
- 대상: 3학년 ~ 12학년 주일학교 등록된 학생들
- 등록기간: 4월 10일 일요일 - 5월 22일 일요일
- 인원: 35명 선착순
- 참가비: \$60 (등록기간 후 \$85)

◆한국학교 공지사항입니다.

1. 단어경시대회
일시: 3월 27일 - 각 반별 진행
시상식: 4월 17일 학생미사 중
2. 한국어 능력 시험 (TOPIK I, II)
일시: 4월 16일 토요일
3. 제2차 통일골든벨 퀴즈대회
일시: 4월 23일 (토) 오후 2시
자세한 문의 사항: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또는 103skcecks@gmail.com

남가주 소식

◆2016 FIAT 장학금 프로그램

- 신청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12th~ 대학, 대학원생), 북미주거주 코리안 어메리칸 신학생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cholarship@fiat.org (714)702-9830

◆2016 FIAT 봉사인정 프로그램

- 자격: 북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가톨릭 학생 (9th~11th)
- GPA 3.0이상
- 신청서 다운로드-www.fiat.org
- 신청마감-3/15(온라인접수시작~5/ 31/2016)
- 신청문의-service@fiat.org (714)702-9830

◆제 3회 학생 성화 미술대회

- 대상: 유치부, 초등부(저학년, 고학년), 중등부, 고등부 학생
- 주제: "예수님 이야기" ● 작품크기: 24x24 인치이내
- 참가비: \$10(Pay to : Mee Lee)
- 접수기간: 4월 15일 ~5월14일
- 문의: 가톨릭 미술가회☎(909)576-5773 (562)292-8999

◆주사위 가족모집안내

- 주사위란 "주님 사랑을 위하여" 의 약자로 주님의 사랑을 음악으로 전하기 위하여 모인 남가주의 천주교 생활 음악 단체입니다. 정기공연과 음악피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함께할 가족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남녀보컬 각2명(오디션있음, 지정곡, 희망곡)
연출담당: 1~2명
- 자격 : 30~40 세 가량의 가톨릭신자
- 신청: jusawil122@gmail.com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강순복 요세피나991-4838 3/19(토) 오후 5시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신중철 아브라함781-0787 3/12(토) 오후 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560-7120 3/13 (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김정심크리스티나 490-9662	박동수 베드로 218-7340 3/19(토)오후6시
	2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이재호 펠렉스 909-557-7490 3/12 (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크리스티나 (레지나) 3/11(금) 오전10시 30분, 성당
토런스 남 최옥희 데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십자가의길'로 대체 3/18(금)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 소화 데레사 634-6923 3/8(화) 오전11시, 성당
	3	김유미 사비나 850-2822	'십자가의길'로 대체
토런스 북 정병옥올리아 404-1607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이복임 엘리사벳 3/14(월) 오후 7시, 성당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1	박진수 스테파노 / 749-3151	조소영 수산나 804-7645 3/12(토) 오후 7시
P. V. 남경희 베네딕다 384-3289	1	남해나 베네딕다 384-3289	유현화 리디아541-4305 3/12(토) 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안민수 베드로 793-6157 3/12(토) 오후6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허릿다 890.-1778 3/13 (일) 오후2시
	4	이귀란 아녜스 617-3568	십자가의 길 3/12 (금)오후 7시30분,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	--

다음주 단체모임

구역장 /반장회의, 사목 회의	1시
------------------	----

2016년 부활 메세지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요한 1,4)

알렐루야, 알렐루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죽음의 어둠을 뚫고 부활하신 거룩한 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총의 빛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부활의 빛과 기쁨, 평화가 한반도 방방곡곡에 그리고 북녘의 동포들에게 더 나아가 온 세상 곳곳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 부활의 은총으로 북한의 핵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남북 관계도 단절과 적대관계가 아닌 소통과 협력관계로 변화되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가 넘치기를 기도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신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와 죽음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 세상을 비추시며, 부활하신 주님 스스로 빛이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미사 예절 중 “그리스도 우리의 빛!”이라는 사제의 외침에 “하느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교회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는 빛으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요한 1,4) 도 기쁜 소식을 전해줄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은 모두 쓸모 없는 것이 되고, 인간의 삶은 결국 멸망과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인간의 희망이며 보증이 됩니다.(1코린 15,14-22참조)

예수님의 부활 직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다락방에서 문을 굳게 닫고 있었습니다.(요한 20,19 참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온갖 세상 걱정과 두려움에 눌려 하느님을 등지고 이기심과 욕심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마음을 달고 폐쇄적인 모습으로 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주자 제자들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요한 20,20-21 참조)

부활하신 주님은 닫혀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 빛으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 죽음에 머물지 않고 용기와 희망, 생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후 과거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어둠에 잠긴 세상에 어둠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빛, 희망의 빛을 비추는 주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예수님께서 수난하시고 죽으셨던 때처럼 어둡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여전히 전쟁과 테러의 위험, 경제적인 문제 등에 많은 사람이 노출되어 두려움을 느끼고, 특히 서민들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평화와 절실히 요청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신앙인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한 위치를 지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의 빛을 받은 사람들로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희망과 사랑의 빛을 세상을 향해 비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얼마 후 국민을 위한 봉사자를 우리 손으로 뽑게 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기심과 권력욕에 사로잡혀 서로 자리다툼을 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다.

(마태 20,20-28 참조)

우리는 이번 총선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선택하도록 국민의 신성한 권리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이 자리에 우리 안에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자비의 해」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루카 6,36)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빛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때보다 부활하신 주님의 빛이 필요한 시기인 만큼, 사순을 시작하면서 요청했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부활 시기 동안에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영광스러운 주님 부활을 맞이하여 온 세상에 주님 부활의 생명과 빛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부활절에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예수님과 함께 처형된 두 죄수

로마 병사들은 사형집행장인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타 언덕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옷을 벗긴 뒤 십자가 위에 누어 놓고 예수님의 손목과 발등 위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얼마 후 병사들 여럿이 달려들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를 똑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형수인 죄수 두 사람도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의 좌우편에 한 사람씩 세워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둔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에 달려 조롱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을 내려다보며 무엇이랴 기도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23,13-34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 언덕에 세운 다음 어떤 행동을 했나요? 백성들은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으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쳐다보고 조롱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함께 예수님을 놀리며 모욕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떤 말로 조롱했을까요? 그리고는 나무 팻말에 글자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여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무엇이랴 썼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23,35-38

그런데 이번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숨을 몰아 쉬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가 듣다못해 예수님을 비난하는 죄수를 꾸짖습니다. 그 죄수는 무엇이랴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 어떤 부탁을 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23,39-43

예수님의 곁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한 죄수는 죽기 바로 전에 구원을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보다 자기가 죄인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을 때 비로소 회개 할 수 있습니다. 회개한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단순해지고 솔직해집니다. 이것은 결코 체념이 아니라, 참으로 위대한 자기 발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보다 더 귀한 깨달음이 또 있을까요?

괄호 속을 채워보세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을 나누어 가졌다.
(루카 23,34)

“예수님, ()에 들어가실 때 저를()해 주십시오.”
(루카 23,42)

◆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학교 홍보국장

기도묵상

성체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이 만나고, 제자가 스승 곁에 있으며,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유혹을 당하는 이가 안전한 피난처를,
앞 못 보는 이가 빛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 복자 야고보 알베리오네 -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9:30~11:30(오전)	2:00~7:00(오후)
수	CLOSED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한우리 여행사

전 세계 항공권 최저가 도매가별 맞춤 투어 전문
213.388.4141 1001 S. Vermont Ave., #209,
1-855-388-4141 Los Angeles, CA 90006

씨니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저희는 유족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늘 3명 이상이 예의를 갖춰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장례플랜전문: 제니퍼 오 : 213-446-9557

장례보험/장례적금/모지매매

모지를 사고 파실 때 문의: 310-908-8823

활인 통증 전문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2140 W. Olympic Bl. #422 LA, CA 90006

☎(213)480-0911

Kim's Music & Art School

Piano, Violin, Clarinet, Saxophone, Cello, Flute, Guitar

창의력 발달 아동 미술, 포트폴리오 준비

*주말 ROBOTICS & LEGO수업

www.kimsmusicschool.com

☎310-387-5772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홀리 크로스 묘지분양

합장묘지, 크립트, 납골당

Jean Kim

☎ (213)842-8366

JJKim@LACatholicCemeteries.org

IF LASER DESIGN Jewelry & Design

625 S. Hill St. Ste 244

Los Angeles, CA 90014

213-955-0038 김서민*미리안

이경희(바오로)

이민법 전문 변호사

능력과 접근방법이 결과를 달리합니다

☎ 213-385-4646(imin)

3435 Wilshire Bl. #1110 LA(에퀴터블)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 - ONE AUTO CENTER

BODY & PAINT

자동차 종합정비, 디젤트럭 정비

☎(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제마-

한 국 장 의 사

LA(FD74), 놀릭(FD1134)

(562)868-0788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가 주 장 의 사
California Mortuary

정 영 목 목사

President Yung M. Jung

Lic. #FD22124 / C0396580 / californiamortuary@gmail.com

LA OFFICE

(FD2256)

(213)568-3025(24hrs)

2717W.Olympic Bl.

#204

LA, CA 90010

MAIN OFFICE

(FD1648)

(562)622-9393(24hrs)

Fax (562)622-4843.

9830 Lakewood Bl

Downey, CA 90240

South Bay Office

(FD2253)

(310)817-4337(24hrs)

16229 Western Ave.

#8

Gardena, CA 90247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Max Cargo Inc.

International Air/Ocean Freight Forwarder

국제 항공/선박 운송/NVOCC

정충로 안토니오

(310)323-8100, Fax (310)323-8884

19825 Hamilton Av.

Torrance, CA 90502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불란서 안경 검안과

FRANCE VISION OPTOMETRY

3104 W. Olympic Bl. L.A., CA 90006

(213) 487-1001

Elizabeth & Dr. Linda Lee

(교우 특별 봉사)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한 스 전 자

냉장고, 세탁기, TV, 가전제품

TEL: 323-732-7131

1200 S. Western Av. LA, CA 90006

한 프란치스코

ECONO LUBE N' TUNE

이코노 종합 정비

타이어 얼라인먼트 스모그 체크 브레이크

310-534-0150 김클라라

2514 SEPULVEDA & CRENSHAW



몬테소리 토요영재학교

U.S JMI KIDS COLLEGE

평생을 좌우하는 3세~7세 두뇌 발달 몬테소리 토요

영재학교에 맡기세요 전화 : 213-434-1314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